

Blake의 *Milton*: 정신적 투쟁을 위한 새로운 출발

김 옥 엽

1

1797년에 시작하여 1804년에 이르기까지의 수차례의 수정과 개작에도 불구하고 *The Four Zoas*를 미완의 원고 상태(manuscript)로 둔 채, Blake는 1804년 거의 동시에 *Milton*과 *Jerusalem*에 착수한다. Blake에 관한 전기적 자료들을 수집한 G.E. Bentley, Jr.는 *Milton*과 *Jerusalem*을 쓰기 시작한 무렵부터 향후 10여 년 동안 Blake가 대중 뿐만 아니라 오랜 친구들과의 단절로 심한 고립과 궁핍을 겪게 되었음을 소상하게 보여준다.¹⁾ 여기서 팔목할 것은 판각가(engraver)이자 화가로서 얼마간 활발한 활동을 하던 Blake의 고립이 그가 평생 고수해온 판각가로서의 독특한 작품세계 및 독자적인 생산 방식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²⁾ 사양일로에 있던 수공업적 장인 판각가로서 Blake의 작품 시장은 현실적으로 소수의 친지와 후원자를 매개로 삼을 수 밖에 없었다. Blake가 1804년의 런던을 이미 판각가, 화가, 조각가, 인쇄업자, 시인들에게 싸움터라기보다, 암살의 도시(the City of Assassination)라 했을 정도로 전문 장인들 간의 상업적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³⁾ 창작과 제작 과정의 분리를 거부하고, 기계적인 인쇄업자의 독점화에 냉소적이던 Blake와 '상품시장'의 단절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⁴⁾ *Milton*과 *Jerusalem*을 쓸 무렵의 Blake의 고립은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 편입되어 상업성을 추구한 출판업자들 및 후원자 William Hayley와의 관계 절연으로 가중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계 절연으로 판로와 주문이 중단되면서 Blake의 작품은 대중들의 시야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후원자나 업자들의 요구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G.E. Bentley, Jr.는 이것이 Blake로 하여금 새로운 방향을 취하게 한 시점이라 지적한다.⁵⁾ Blake는 이후 얼마간은 그림 작업이 아닌 시작에 몰두하는 바 그 소산이 후기시 *Milton*과 *Jerusalem*이다. Blake가 *Milton*을 다음과 같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경고와 격려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되새겨 봄직하다.

1) G.E. Bentley, Jr. *Blake Records*(Oxford UP, 1969), pp.62-255 참조. "III. Patronage and Dependence: 1800-1805", "IV. Independence and Obscurity: 1806-1818".

2) 작품 제작 방식에 대한 설명은 Geoffrey Keynes, *Blake Studies*(Oxford UP, 1971), pp. 122-129.

3) G.E. Bentley, Jr. 앞 책, p.154.

4) "Annotations to the Works of Sir Joshua Reynolds"(1798), E. 637. "Public Address" (1810), E. 573-576 참조. Text는 *The Complete Poetry and Prose of William Blake*, ed. by D.V. Erdman(Univ. of California Press, newly revised edition, 1982).

5) G.E. Bentley, Jr. 앞 책, p.175.

Rouze up O Young Men of the New Age! set your foreheads against the ignorant Hirelings! For we have Hirelings in the Camp, the Court, & the University: who would if they could, for ever depress Mental & prolong Corporeal War. Painters! on you I call! Sculptors! Architects! Suffer not the fash(i)onable Fools to depress your powers by the prices they pretend to give for contemptible works or the expensive advertizing boasts that they make of such works... (M. 1. Preface)

상업성이 예술에 끼칠 악영향에의 이같은 침예한 인식은 서문 말미에서 “우리가 푸르른 낙원의 땅 영국에/예루살렘을 건설하기까지/나는 결코 정신적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내 손 안에서 나의 무기가 잠자게 하지 않을 것(I will not cease from Mental Fight,/Nor shall my Sword sleep in my hand:/Till we have built Jerusalem./In Englands green & pleasant Land. M. Preface)”라는 결의로 이어진다. 본고에서는 이상을 염두에 두고 장인-예술가 Blake가 *Milton*에서 보여준 “정신적 투쟁”을 위한 새로운 출발의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11

Blake가 *The Four Zoas*에서 제시한 묵시(Apocalypse)의 비전은 우리가 몸담은 타락한 역사의 현장에서의 새로운 하늘의 열림으로서, 지각과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Milton*에서 Blake가 집중적으로 모색한 것은 이러한 인식의 대전환 및 새로운 역사적 비전을 선도할 예술가의 자질과 복무영역 확장의 구체적인 방법이라 요약할 수 있다. *Milton*에서 Blake는 무엇보다도 먼저 시인 혹은 예술가 내부에서 시정신 혹은 상상력의 온전한 활동을 저해하는 추상적 관념적 아집(Selfhood)를 섬멸하는 작업에 눈을 돌린다. 이는 “부정(negation)”이요 “인간 내부의 추상력(the Reasoning Power)”로, 거짓육신이며 불멸의 정신을 뒤덮은 외피이므로 떼어내어 섬멸해야 한다고 강조된다.(M. 40: 34-36) Blake가 하는 이같은 자기 점검, 내부 성찰의 작업은 억압적 지배 이념의 내면화로 부지불식간에 “마음이 만든 차꼬(The mind-forged manacles)”에서의 해방을 구하는 것이다. Blake는 이를 대신인 Milton이 자신의 오류가 과거에 미쳐 자각하지 못했던 내부의 질곡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지상으로 하강하는 극적 형식을 빌어 보여 주므로써 그 효과를 증폭시킨다. 이 여행은 시적 상상력의 회복과 해방을 향한 창조작업상에서 극복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과제에 대한 모색이라 할 수 있다.

Milton이 자아섬멸(Self-annihilation)의 여행을 시작하는 계기로 Blake가 ‘한 시인의 예언의 노래(A Bard’s Prophetic Song)’을 도입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Blake가 실제로 독자나 청중들을 갖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시인의 노래가 끝났을 때 “모든 이들은 생각에 잠겼고, 커다란 웅성거림의 반향이 홀 주변을 감돌았다”고 되어 있다.(M. 13: 45-46) 그런데 청자인 신들(Eternals)의 반응은 노래의 내용의 진위를 석연치 않아 하며 던진 의문과 비난이고, 그에 시인은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I am Inspired! I know it is Truth! for I sing
According to the inspiration of the Poetic Genius

Who is the eternal all-protecting Divine Humanity

(M. 13: 51-14: 2)

그러나 시인은 “시 정신의 영감”에 대한 “회의가 대지의 뿌리와 단단한 지반을 뒤흔드는” (M. 14:9) 상황에 놀라 청중들 중 하나인 Milton의 가슴으로 피신한다. Milton의 가슴으로 뛰어든 시인은 불안과 회의를 지닌 채, 이제 막 새로운 시를 쓰려는 Blake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회의어린 반응들에도 불구하고 시인의 노래가 Milton의 자아섭멸의 “영원한 죽음”을 택하는 계기가 되고, 영감받은 시인을 가슴에 품고 중대한 결단을 내린 Milton의 행보가 동명의 시 *Milton*으로 형상화되는 과정은 그 자체로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W.J. T. Mitchell은 *Milton*이 시인으로서의 Blake의 생애에서 근본적인 전환점, 즉 예술적 결단이 삶의 결단과 불가분이 되는 지점을 서술한다고 읽고, 사람들을 상상력이 풍부한 행동으로 이끄는 힘으로서 시의 한계예의 탐구이자 그 타파, 시정신의 민주화예의 예언이라고 평가한다.⁶⁾

*The Four Zoas*에서 Urizen과 Luvah 간의 알력이 네 조아들 간의 불화와 분리를 야기시켜 Albion이 죽음같은 잠에 빠지는 것으로 회상된 전락(Fall) 신화는, 시인의 노래에서 Albion의 살해와 Los의 세 계급의 인간들(Three Classes of Men)의 창조로 각색된다. 흥미롭게도 시인의 관점에서 해명된 Albion 살해의 원인은 “살아있는 형상에의 질시, 심지어 신성한 비전과 주 예수의 신성한 육신인 인간의 상상력 안에서의 지혜의 활동에 대한 질시(through envy of Living Form, even of the Divine Vision/And of the Sports of Wisdom in the Human Imagination/Which is the Divine Body of the Lord Jesus, M. 3: 2-4)”이다. 초기부터 Blake가 정신과 육체, 의식과 물질, 주체와 객체의 이원론을 인간전락의 근원으로, 그 극명한 표현으로 역설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시인의 노래는 이러한 이분법에 따른 인식상의 타락을 인간의 상상력의 지혜로운 활동의 죽음으로 명시한 것이다. Albion의 전락과 Los의 창조는 동시적 사건으로, Los의 “창조”는 전락의 대혼돈을 제한하는 의미를 지닌다. Los가 창조한 세계급의 인간들은 “두 대립물과 추상적 부정(The Two contraries & the Reasoning Negative, M. 5: 14)”의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서, “The Reprobate”, “The Redeem’d”, “The Elect”라 불리운다.(M. 7: 1-13) Los의 아들들 중 Rintrah, Palamabron, Satan이 각각 그 계급을 대표한다. 많은 평자들이 Palamabron과 Satan의 분쟁을 후원자 Hayley와 Blake 간의 불화와 연관짓고 이 대목에서의 Palamabron과 Blake를 동일시 한다.⁷⁾ 우리는 이러한 배경을 참조하되, Los의 세 계급의 인간들이 전 사회의 조직원리에 대한 일종의 알레고리즘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⁸⁾ 이는 사회질서의 본질적 원리를 묻고, 그 구성원인 예술가의 지위 뿐만 아니라 근본질서가 어떻게 전복되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에의 서술로 읽어야 한다. 세 계급의

6) W.J.T. Mitchell, “Blake’s Radical Comedy: Dramatic Structure as Meaning in *Milton*” in *Blake’s Sublime Allegory*, eds. by Stuart Curran and J.A. Wittreich, Jr. (The Univ. of Wisconsin Press, 1973), p.282.

7) 예컨대 N. Frye, *Fearful Symmetry*(Princeton UP., 1969), p.315. “Notes for a Commentary on *Milton*” in *The Divine Vision*, ed. by Vivian De Sola Pinto(NY: Haskell House Publishers, Ltd., 1968), p.131. H. Bloom, *Blake’s Apocalypse*(NY: Doubleday & Company, Inc., 1963), p.310. D.V. Erdman, *Blake: Prophet Against Empire*(Princeton UP., 1977), p.396.

인간들은 사회 구성원일 뿐 만 아니라 모든 제도 및 개개인, 만물의 조직원리이며 상호작용의 기본 구조이다. “세 계급들은 모든 국가와 모든 가족/그리고 흙, 금속, 나무, 물고기, 새와 짐승의 모든 종에서 태어나기 때문이다(For in every Nation & every Family The Three Classes are born/And in every Species of Earth, Metal, Tree, Fish, Bird, & Beast, M. 25: 40-41)”

시인의 노래 이후 시의 내용은 크게 두 갈래로 요약된다. 하나가 Milton의 자아 섬멸의 과정으로 Urizen, Satan, 저항세력들과의 투쟁, 여성부(Emanation) Ololon과의 변증법적 통합의 과정으로 극화된다. 또 하나는 Los와 그의 아들들의 치열한 노동을 통해 세계가 재인식되는 과정이다. Blake는 이를 “거대한 우주를 건설하는 일: 정신적 형상의 창조(To build the Universe Stupendous: Mental forms Creating, M. 30: 20)”이라 요약한다. Milton의 “영원한 죽음”이 궁극적으로 영원의 비전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M. 14: 14-31), Los의 창조 작업은 현실과 자연계에 대한 우리의 타락한 지각의 틈니 바퀴를 ‘거꾸로’ 돌려서 새로운 비전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창조적 죽음과 지각의 전환 과정이 병치되는 가운데 Milton이 Blake의 발을 통해 들어가 하나가 되고, Los가 Blake의 영혼으로 들어감으로써 “Milton-Blake-Los”라는 합일체, 강력한 상상력 및 시적 비전의 전선이 형성되기에 이른다.

III

Blake는 이 두갈래의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시점을 이동하여 병치하듯이 엮어 간다. 이같은 서술 구조는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동시성을 역설하여 이 일련의 작업들을 상호연관된 것으로 파악할 것을 요구한다. 예컨대 *The Book of Urizen*과 *The Four Zoas*에서 타락한 어둠인 Urizen에게 인간의 형상을 부여하여 그 혼돈을 제한하던 Los의 창조 작업이 Milton에서는 Milton의 중요한 몫으로 돌려진다.(M. 19: 1-15) 이 대목에 곧이어 Blake는 갑자기 우주의 대혼돈과 네 조아들의 전략을 언급한다. 그리고 “그러나 이들 한가운데/로스와 에니싸면이 쉬임없이 우주를 건설한다:/밀튼은 그곳으로 가고 있었으나, 유리존이 길을 막아 섰다 (But in the midst of these,/Is built eternally the Universe of Los and Eitharmon:/Toward which Milton went, but Urizen oppos'd his path, M. 19: 24-26)”는 식으로 Milton의 여정과 Los의 세계를 연결한다. 전략과 동시에 Albion은 시간과 공간의 혼돈의 바다가 되고, 이 한가운데 건설되는 Los의 세계는 Mundane Shell 혹은 Mundane Egg라 지칭된다. 이를 Blake는 “방대한 우묵한 대지:/식물적인 지구 상의 만물에 드리운 거대한 굳어진 그림자(a vast Concave Earth: an immense/Hardened Shadow of all things upon our vegetated Earth, M. 17: 21-23)”라 묘사한다. John Howard는 Los의 Mundane Egg를 외부세계로 둘러싸인 인간 내면의 상징으로, N. Frye는 인간 정신이 현실로 비상할 때 돌입해야 하는 경계가 불분명한 물질세계라 풀이한다.⁹⁾ 이들은 얼핏 상반된 해석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각기 다른 측면에서 Mundane Shell의 본질을 지적하고

8) S. Crehan, *Blake in Context*(Gill & Macmillan, 1984), p.71.

9) John Howard, *Blake's Milton: A Study of Selfhood*(Rutherford: Fairleigh Dickinson UP., 1976), p.40. N. Frye, *Fearful Symmetry*, p.48.

있다. 왜냐하면 “식물적인 지구상의 만물의 거대한 그림자”라는 표현에서 짐작되듯이 “식물적 대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똑같이 Mundane Shell에서 거꾸로 볼 수 있기(whatever is visible in the vegetated Earth, the same is visible in the Mundane Shell: revers'd, *J.* 72: 46-49)” 때문이다. Los의 Mundane Shell의 중심지에서는 “예술과 생산의 도시(the City of Art & Manufacture, *M.* 24: 50)”, “정신적으로 영원한 네겹 런던(the spiritual Four-fold London eternal, *M.* 6: 1-2)”인 Golgonooza의 부단한 창조와 파괴가 일어난다. Blake는 이 도시에 이르는 길이 두가지라고 말한다. “영원으로부터 오는 여행자들은 사탄의 자리를 향해 바깥 쪽으로 간다./그러나 영원으로 가는 여행자들은 골고누자를 향해 안쪽으로 간다(travellers from Eternity, pass outward to Satan's seat, /But travellers to Eternity, pass inward to Golgonooza, *M.* 17: 29-30)”. Milton은 영원에서 하강하였으므로 Golgonooza에 이르기 전에 사탄의 자리를 향해 “바깥으로” 가야 한다. Golgonooza가 Milton이 향한 창조의 장소인 동시에 Los와 그의 아들들의 창조작업 그 자체라면, 사탄의 자리는 Blake의 “상상력의 지옥(a nether region of the Imagination, *M.* 21: 6)”인 Ulro이다. “두뇌와 심장과 살 안에는 사탄의 자리 뒤로 골고누자 시로의 문이 열려있다.(in brain and heart and loins/Gates open behind Satans Seat to the city of Golgonooza, *M.* 20: 38-39)” 이런 표현들에서 우리는 “사탄의 자리를 향해 바깥 쪽으로”와 “골고누자를 향해 안쪽으로”의 여행은 대립된 관점 및 상반된 인식 태도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인식의 타락상태에서 지각주체는 외부세계만을 확실한 실체로 인정하고 눈을 “바깥”으로 돌린다. Blake는 후기시 내내 “그대의 눈을 안으로 돌려라 그러면 거기서 신의 양을 보리라(Turn inwardly thine Eyes & there Behold the Lamb of God, *FZ.* VIIa 87: 43)”의 성취를 모색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Blake는 사탄을 “Newton's Pantocrator Weaving of the Woof of Locke, *M.* 4: 11)”이라 부르고 사물 하나하나의 내부에 로크류의 경험주의로는 접근 불가능한 상상력의 중심이 있음을 역설하고, 특별한 각성의 순간에 이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한다. (*M.* 31: 46-49) 부단히 내부 확장 운동을 하는 상상력의 중심은 일상 속에서 사탄이나 사탄의 불침번들이 찾을 수 없는 한 순간(A Moment)에 경험되며 부지런한 이들은 이 순간을 증식시킨다. 이 순간은 일단 발견되어져 올바르게 자리잡으면 일상의 매 순간을 혁신시키기에 이른다. (*M.* 35: 42-45) Blake는 이같은 창조적 각성에 이르는 지각 근본의 문제를 모든 사물이 지닌 고유의 소용돌이(vortex)를 통과하는 과정으로 표현한다. (*M.* 15: 21-35) 지각 대상의 소용돌이를 통과한다는 것은 그 대상의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그 대상의 내부로 들어가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단계적으로 대상의 고유한 특성과 형상을 인식하는 것에서 상호작용, 상호연관 관계의 인식으로 나아간다. 그에 따라 대상은 “안으로 접혀드는 구”가 아니라, “마치 태양, 달 혹은 별이 빛나는 장엄한 우주 같고”, “마치 그와 인정을 나누며 사는 친구, 인간의 형상같이” 받아 들여진다. Blake는 이 대목을 가리켜 “이것이 바로 무한의 본질이다(The Nature of Infinity is this)”라고 말한다. Blake에게 영원(Eternity)이 초시간적 개념이 아니듯이, 무한(Infinity)도 무제한의 공간 개념이 아니다. 여기서 무한은 대상을 그 대상의 관점에서 특히 각별한 종류의 강렬함과 감정이입으로 지각하는 상태를 의미한다.¹⁰⁾ 주체와

10) W.J.T. Mitchell, *Blake's Composite Art*(Princeton UP., 1978), pp.70-72. 소용돌이를

객체를 이분법적으로 지각하는 경우 지각 주체와 대상사이에는 늘 공간이 들어 서게 된다. Blake는 이를 “창조의 질료들 사이에 놓인 뉴턴적 허공들(the Newtonian Voids between the substances of creation, *M.* 37: 46)”라 지칭한다. 뿐만 아니라 이원론적 사고는 우주 및 외부 세계를 조절하고 지배하기 위하여 대상의 고정된 소용돌이를 상정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The Four Zoas*에서 자신의 동굴을 탐사하던 Urizen이 무제한의 혼돈과 미래에의 불안을 수많은 소용돌이를 창조하고, 수많은 과학을 심연에 고정하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대목이다. (*FZ.* VI. 72: 13) 이는 모든 대상을 자의적 중심에 고정시켜 단일 비전으로 외연화하고, 인간의 감관을 육체라는 동굴에 가두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Milton이 섬멸해야 하는 사탄적 아집의 주요 특성이다. 반면에 Blake는 지각주체를 살아있는 신성한 모든 “미세한 개체(a Minute Particular)”로 간주한다. 일례로 “모래알 보다도 작은 날벌레(the little winged fly, smaller than a grain of sand, *M.* 20: 19)”의 다음 언급을 들 수 있다. Milton의 여행이 진전되면서 조금씩 잠에서 깨어나는 Albion을 향해, Milton은 미세한 생명체의 범상한 경이로움을 환기시킨다.

It has a heart like thee: a brain open to heaven & hell,
 Withinside wondrous & expansive: its gate are not close'd
 I hope thine are not hence it clothes itself in rich array:
 Hence thou are cloth'd with human beauty O thou mortal man,
 Seek not thy heavenly father then beyond the skies. (M. 20: 28-32)

Los의 작업 역시 하늘 너머가 아닌 지상의 “미세한 개체”들의 상상력의 중심에 Golgonooza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생성된 육체가 그 내적 형상으로 로스의 아들들이 건설하는 기쁨의 정원이요 장엄한 건축물이(every Generated Body in its inward form/Is a garden of delight & a building of magnificence./built by the Sons of Los, *M.* 26: 31-33)”될 수 있는 것이다.

IV

Milton의 자아 섬멸의 “바깥 쪽으로”의 여행은 자신의 그림자(shadow)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된다. Milton의 그림자는 Blake를 비롯한 보는 이들에게 처음에는 “떨어지는 별”로, 유럽을 뒤덮는 “먹구름”으로 보인다. (*M.* 15: 36-50) Los역시 이러한 Milton의 그림자에 대경실색하여 Milton의 행보를 저지한다. (*M.* 17: 31-36) 나중에 Milton의 “인간적 부분(real Human)”이 자신의 발을 통해 들어 오고 나서야 비로소 Blake는 그것이 Milton이었음을 알아 차린다.

Milton entering my foot: I saw in the nether
 Regions of the Imagination: also all men on Earth.

지각의 문제와 연관지은 설명들로는 N. Frye, *Fearful Symmetry*, p.350. H. Bloom, *Blake's Apocalypse*, pp.324-326. Susan Fox, *Poetic Form in Blake's "Milton"* (Princeton UP., 1976), pp.71-73 참조.

And all in Heaven, saw in the nether regions of the Imagination
 In Ulro beneath Beulah, the vast breach of Miltons descent:
 But I know not that it was Milton, for man cannot know
 What passes in his members till periods of Space & Time
 Reveals the secrets of Eternity.

(M. 21: 4-10)

“공간과 시간의 수 세대가 영원의 비밀을 드러내 주는” 과정이 이대목에서 말하자면 Milton의 여정인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어떤 이는 Milton을 Mundane Shell 내에서의 Los의 대행자로 평가하기도 한다.¹¹⁾ 후에 Los는 Milton의 등장을 육천년 전략의 역사의 끝을 알리는 “각성자의 도래(The Awakener is Come, M. 25: 22)”라 천명한다.

“떨어지는 별”로 외연화하여 Blake와 하나가 되기까지 Milton의 행보는 Urizen과의 싸움에서 인간의 형상을 창조해 주는 승리를 거두고, 아름다운 옷을 걸치고 미혹하는 대상화된 자연(Shadowy Female)의 유혹과 이신론을 강변하는 Rahab과 Tirzah의 저지를 뿌리치며 계속된다. 여행의 진전에 따라 Milton의 상상력과 비전이 회복되는 것을 Blake는 다음과 같이 자아를 세분화하여 나타낸다.

Silent Milton stood before
 The darkened Urizen: as the Sculptor silent stands before
 His forming image: he walks round it patient labouring
 Thus Milton stood forming bright Urizen, while his Mortal Part
 Sat frozen in the rock of Horeb: and his Redeemed portion,
 Thus form'd the Clay of Urizen: but within that portion
 His real Human walked above in power and majesty.

(M. 20: 6-13)

영원의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그 자체 내부의 빛으로 빛난다. 그런데 사탄(혹은 유리즌)의 가슴이 신성한 비전을 거부하여 점차 어두어 저서, 내부의 빛을 차단시킴에 따라 그 비전을 볼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M. 10: 16-20) “어두어진 유리즌”이 Milton의 각고의 노동 끝에 “빛나는 유리즌”이 되는 것은 Urizen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Milton의 창조력의 회복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리는 동안 Milton의 그림자 부분, 즉 “선자라 불리는 부분, 밀튼의 허상(that portion nam'd the Elect: the Spectrous body of Milton, M. 20: 20)”은 우주 공간으로 물러난다. Blake는 이러한 Milton의 성취를 “이제 섬뜩하도록 급강하한 밀튼의 충격적인 불꽃을 느끼며./앨비언의 잠자던 인간성이 자리에서 뒤척이기 시작했다(Now Albions sleeping Humanity began to turn upon his couch:/Feeling the Electric flame of Miltons awful precipitate descent, M. 20: 25-26)”고도 표현한다. 이런 Milton의 모습에 이제 Los도 앞서의 우려에서 벗어나 Albion의 땅의 Milton이 Ulro로부터, Felpham 계곡으로부터 상승하여 Orc를 질투의 사슬에서 풀어 줄 것이라고 예언에 기록된 “옛 예언(an old Prophecy)”을 회상해 낸다.(M. 20: 57-61) 이 회상은 Los를 곧장 Golgonooza 건설로 인도한다.

11) E.J. Rose, “Blake’s Milton: The Poet as Poem”, in *Blake Studies* (Fall, 1968), p. 34.

한편 Felpham 계곡의 언급은 Milton이 Blake의 발로 들어선 순간 이후 전개된 시의 내용이 Blake 자신의 변화를 보여 주는 것임을 암시한다.¹²⁾ Blake가 Felpham에서 런던으로 돌아와 Hayley와 출판업자들과 절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생계를 위한 작업에서 벗어나는 출발을 할 수 있었고, 그 처음 소산이 Milton이었던 것이다. Milton이 자신의 왼쪽발로 들어 오자, Blake는 식물적인 지구를 영원으로의 매개로 삼을 수 있게 된다.

all this Vegetable World appeared on my left Foot,
As a bright Sandal formd immortal of precious stones & gold
I stooped down & bound it on to walk forward thro' Eternity. (M. 21: 12-14)

이는 외부세계에 대한 지각의 타고난 창조성의 회복, 총체적 시적 인식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Blake가 샌달을 묶는 것과 동시에 Los가 Blake에게로 들어 오는 것은 이런 가능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And Los behind me stood: a terrible flaming Sun: just close
Behind my back: I turned round in terror, and behold.
Los stood in that fierce glowing fire: & he also stoop'd down
And bound my sandals on in Udan-Adan: trembling I stood
Exceedingly with fear & terror, standing in the Vale
Of Lambeth: but he kissed me and wished me health.
Twas too late now to recede. Los had entered into my soul:
His terrors now posses'd me whole! I arose in fury & strength. (M. 22: 5-14)

Los가 Blake의 샌달을 묶어 주는 Udan-Adan호는 물로 된 호수가 아니라, “윤곽도 형상도 없는(neither lineament nor form, M. 26: 26)” 혼돈으로 Los가 구체적인 형상으로 제한하기 위해 그 둘레에 Golgonooza를 건설하는 곳이다. 그리고 함께 언급된 템즈강 남쪽의 “램베쓰 계곡은 예루살렘의 기초가 시작되는 곳”인데, 혁명과 잇단 전쟁의 와중에서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린 곳”이다.(M. 6: 14) 말하자면 Los의 우단아단호와 Blake의 램베쓰 계곡은 창조적 상상력 회복의 도상에서 일종의 등가물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Milton-Blake-Los’로 하나가 된 “우리”는 이제 Los의 “최상의 거처(supreme abode, M. 22: 26)”인 Golgonooza로 함께 나아간다.

V

Blake는 *The Four Zoas*에서와는 달리 *Milton*에서 Golgonooza 건설 과정 보다는 Golgonooza가 활발한 창조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이자 도구임을 강조한다.

come O Sons, come, come away

12) Thomas A. Volger, “Blake: Mental Fight” in *Preludes to Vision: The Epic Venture in Blake, Wordsworth, Keats, and Hart Crane*(The Univ. of California Press, 1971), p.48. D.V. Erdman, 앞 책, p.349, 384.

Arise O Sons give all your strength against Eternal Death
Lest we are vegetated...

Were it not for Bowlahoola & Allamanda
No Human Form but only a Fibrous Vegetation
A Polypus of soft affections without Thought or Vision
Must tremble in the Heavens & Earths thro all the Ulro space[.]
Throw all the Vegetated Mortals into Bowlahoola.

(M. 24: 36-41)

“영원한 죽음”에 대항하는 방편으로 “식물화된 인간들”을 던져 넣는 곳으로 처음 언급된 Bowlahoola와 Allamanda는 Golgonooza시 안의 Los의 작업장들의 명칭이다. Los의 연장들이 있는 Bowlahoola는 법(Law)이자, 인간의 위(Stomach)이다.(M. 24: 48-49, 67) Los의 연장들 중 풀무는 동물들의 허파이며, 해머는 동물들의 심장이며, 불가마는 동물들의 위이기도 하다.(M. 24: 58-59) 한편 지상에서 상업(Commerce)라 불리우는 Allamanda는 Golgonooza시 주변의 쟁기질과 씨레질이 멈추지 않는 경작지이다. 인간의 법률과 상업, 신체기관들이 바로 도구이자 작업장인 Golgonooza에서의 노동은 “엘비언이 깨어나기 까지 지상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인간에게 자비로 주어진 “예술”이다.

in Eternity the Four Arts: Poetry, Painting, Music,
And Architecture which is Science: are the Four Faces of Man
Not so in Time & Space: there Three are shut out, and only
Science remains thro Mercy: & by means of Science, the Three
Become apparent in Time & Space, in the Three Professions.

Poetry in Religion: Music, Law: Painting, in Physic & Surgery:
That Man may live upon Earth till the time of his awaking,
And from these Three, Science derives every Occupations of Men.
And Science is divided into Bowlahooda & Allamanda.

(M. 27: 55-63)

이는 “인간사 전체가 예술(The Whole Business of Man is the Arts, *The Laocoon*, E. 273)”이라는 Blake의 주장의 진의를 표명해 주는 대목이라 여겨진다. 다른 자리에서 Blake는 “예술이 세상에 현존하는 탁월한 예술의 본보기들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술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다. 그것은 정신의 재능에 눈이 멀어 가고 있음이다(To suppose that Art can go beyond the finest specimens of Art that are now in the world, is not knowing what Art is: it is being blind to the gifts of the spirit)”라고 말한다.¹³⁾ 이런 의미의 예술은 지각 대상이 아니라, 영원의 비전을 위한 매개이다. Blake는 이러한 예술을 소생시키는 것을 삶의 소임(“To recover Art has been the business of my life, E. 569”)으로 삼았던 것이다.

“상상력을 지닌 인간의 눈에는 자연은 상상력 그 자체(to the Eye of the Man of Imagination Nature is Imagination itself)”¹⁴⁾이지만, 식물적인 눈으로는 “그 옷자락

13) “A Descriptive Catalogue of Pictures”(1809), E. 535.

14) Letter to Rev. Dr. Trusler, August 23, 1799, E.702.

(the hem of their garments, *M.* 26: 11)”만을 볼 따름이다. 자연이 바로 영원의 비전임을 보는 지각의 대전환을 도와주는 것이 상상력의 매개로서의 Los의 작업이다. 또 하나 중요한 Los의 도구가 소개된다. 지상에서 전쟁이라 불리우는 포도 압축기(Wine-Press)로, Blake는 이를 Los의 “인쇄기(Printing-Press)”라 부른다. “여기서 그는 인간의 두뇌 위에 자신의 말을 질서있게 배열한다./마치 톱니들이 반대 톱니들을 돌리도록 만들어진 것과 같이 (here he lays his words in order above the mortal brain/As cogs are formed in a wheel to turn the cogs of the adverse wheel, *M.* 27: 8-10)”. Los의 세계에서 Los의 아이들 혹은 아들들은 상상력의 눈으로 본 자연 즉, 영원한 비전들이고, 포도 수확을 하는 노동자들이기도하다. (*M.* 25: 66-26: 12) 뿐만 아니라 Los의 아이들은 지각의 전환을 유도하는 장인이 되기도 한다.¹⁵⁾ 예를들면 이들은 윤곽도 형태도 없는 가없는 열정과 욕망에 이름과 거처를 주어 신성한 사유의 형상들로 창조해 낸다. (*M.* 28: 1-7) 흙 속에 묻힌 다이아몬드처럼, 열린 내면 한가운데 빛나는 영원을 지닌 가난한 시인에게 격랑의 파도를 견딜 압력을 지어 주기도 한다. (*M.* 28: 30-39) 어떤 아이들은 “순간들과 분들과 시간들/그리고 날들과 달들과 해들과 연대들과 시대들이라는 경이로운 건축물을 세운다(build Moments & Minutes & Hours/And Days & Months & Years & Ages & Periods: Wondrous buldings, *M.* 28: 44-45)”. 이렇게 하여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이 전환된다. “동맥의 박동 보다 짧은 모든 시간이/그 기간과 가치에서 육천년과 맞먹는다./왜냐하면 시인의 작품이 이때 완성되므로: 그리고/시간 속에 일어난 모든 위대한 일들이 이때 시작되고 착상되기에/한 순간에: 동맥의 한 박동에(Every time less than a pulsation of the artery/Poets Work is Done: and all the Great/Events of Time start forth & are conceived in such a period/Within a Moment: a Pulsation of the Artery. (*M.* 28: 62-29: 3)”. Blake는 하늘을 Los의 아들들이 세운 불멸의 천막이라 명명하며, 지구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한다. 예컨대 어떤 이가 자기가 사는 곳 주위에서, 지붕 위에서, 언덕에서 바라보는 공간 하나하나가 그의 우주가 될 수 있다. 그가 거주지를 옮기면 그의 하늘들도 함께 이동한다. 이것이 지구라 불리는 공간이며 차원이다. 다시 말하면 Blake는 인식의 전환은 가장 먼저 각자 처한 위치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 출발함을 역설하는 것이다.

As to that false appearance which appears to the reasoner,
 As of a Globe rolling thro Voidness, it is a delusion of Ulro
 The Microscope knows not of this nor the Telescope. they alter
 The ratio of the Spectators Organs but leave Objects untouched
 For every Space larger than a red Globule of Mans blood.
 Is visionary: and is created by the Hammer of Los
 And every Space smaller than a Globule of Mans blood opens
 Into Eternity of which this vegetable Earth is but a shadow:
 The red Globule is the unwearied Sun by Los created

15) Robert F. Gleckner, “Most Holy Forms of Thought: Some Observations on Blake and Language”, in *ELH*, 41(Fall, 1974), p.569.

To measure Time and Space to mortal Men. every morning.

Bowlahoola & Allamanda are placed on each side

Of that pulsation & that Globule, terrible their power. (M. 29: 15-20)

동맥의 박동보다도 짧은 한 순간이 육천년과 맞먹는 강렬한 상상력의 시간이 되듯이, 혈구보다도 작은 공간이 불굴의 태양으로 영원애로 열려져 있다. 그리고 이 박동의 순간과 혈구의 공간 어디에고 Los의 작업장 Bowlahoola와 Allamanda가 대단한 위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제 Los는 인간들에 의해 시간이라 불리우고, Enitharmon은 공간이라 불리운다.(M. 24: 18) Blake는 뉴턴과 로크의 실증주의적 경험주의에 도전하여, 그러한 이념에는 전혀 낯선 사유로서의 상상력의 가치를 높이 혼든 것이다. H. Bloom은 주석에서 이 대목들을 Blake의 “상상력의 문법(a grammar of imagination, E. 921)”의 서술이라 부른다. Milton, Los와 하나가 되어 Blake가 들어가 본 사탄의 가슴은 “영락한 인간이며, 손으로 만들지 않은 신의 무너진 건축물(A ruind Man: A ruind building of God not made with hands, M. 38: 15-16)”이라 표현된다. Blake가 수공업적 장인 예술가이며, Los가 부단히 해머를 두드리는 대장장이자 대 건축가인 것과는 대조로, 사탄은 손으로 만들지 않은 구조물인 것이다. 사탄은 “어리석은 이론가(the idiot Questioner)”의 “추론적 실증(Rational Demonstration)”이나 “썩은 기억의 누더기(the rotten rags of Memory)”의 건축물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 Milton이 사탄적 자아 섬멸의 근본 목적을 “생명의 바다에 몸을 씻기 위하여: 인간이 아닌 것을 씻어 버리기 위하여/.../구세주에의 믿음으로 추론적 실증을 벗어 던지기 위하여/영감으로 썩은 기억의 누더기들을 벗어 버리기 위하여/엘비언을 뒤덮은 베이컨, 로크와 뉴턴을 떼어내기 위하여/그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상상력의 옷을 입히기 위하여/시에서 영감이 아닌 것을 모두 버리기 위하여(To bathe in the Waters of Life: to wash off the Not Human/.../To cast off Rational Demonstration by Faith in the Saviour/To cast off the rotten rags of Memory by Inspiration/To cast off Bacon, Locke & Newton from Albions covering/To take off his filthy garments, & clothe him with Imagination/To cast aside from poetry, all that is not Inspiration, M. 41: 1-7)이라 천명하는 데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개인이자, 인류의 거대한 육체인 인간(Man)이며, 육천년 역사인 Albion의 이같은 구원 방식은 Milton의 서문 말미에 인용된 “주의 백성 모두가 선지자이게 하소서”에 실은 Blake의 기원과 상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Blake의 생각은 “상상력은 인간 존재 그 자체(The Imagination is the Human Existence itself, M. 32: 31)”라는 간결하지만 함축적인 어구 속에 그 힘을 응축한다.

Milton의 사탄적 자아 섬멸은 여성부 Ololon과의 통합을 이루는 것으로 완성된다. Milton이 사랑하거나, 혹은 창조한 모든 대상 및 작품의 총체의 형상인 여성부 Ololon을 대상화하여 “여성의지”화 하지않고, 진정한 대립물로 받아 들이게 된 것은 Milton의 상상력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다.¹⁶⁾ 마침내 Milton이 여덟번째 눈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자, Ololon에게서 극복되지 못한 부정적인 부분은 구름의 형상이 되고, 다시 Milton의 “피묻은 겔옷(a Garment dipped in blood)”으로 외연화한다. 그런데 “그 안팎에는 엮어진 글씨들이 쓰여

16) N. Frye, *Fearful Symmetry*, p.73, p.336.

있었고 그 글은/문자로 표현된 신성한 계시이다(Written within & without in woven letters: & the Writing/Is the Divine Revelation in the Litteral expression, *M.* 42: 13-14) Blake는 이를 Felpham 계곡에서 자신이 경험하는 계시의 순간으로 묘사한다. (*M.* 42: 24-28) 요컨대 각성자 Milton의 성취는 바로 *Milton*이란 시인 것이다.

이제 모두가 “나라들의 거대한 추수와 포도 수확으로 나아 갈(To go forth to the Great Harvest & Vintage of Nations, *M.* 43: 1)”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는 결구와 함께, 우리는 Los가 추수의 연장을 버리며, Golgonooza를 건설하고 있는 “시인의 노래”로 다시 오게 된다. 여기서 그 노래가 예언의 노래이며, 시정신의 영감과 신성한 비전으로 불리워 졌다고 항변된 연유를 다시 짚어 볼 수 있다. 계속 건설되고 파괴되는 Golgonooza의 창조 작업 속에서 정신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건설하기까지, *Milton*에서 Blake가 Golgonooza를 “정신적인 네겍 런던”으로 칭하는 것도 이런 염원을 보여준다. 그러나 Golgonooza는 예루살렘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고, 수단이다. 예루살렘에의 약속으로 서 있는 예술과 생산의 도시 Golgonooza는 끝없는 자기파괴 속에 창조되는 “새로운 골고다(the new Golgotha)”¹⁷⁾이다. 이런 맥락에서 *Milton*은 *Jerusalem*의 서곡이라 할 수 있다.

References

1. Primary Work

The Complete Poetry and Prose of William Blake, ed. David V. Erdman, Commentary by H. Bloom, Newly Revised Edition. Univ. of California Press, 1982.

2. Secondary Works

Bently, G.E. Jr. *Blake Records*. Oxford UP, 1969.

Bloom, Harold. *Blake's Apocalypse*. NY: Doublday & Company, Inc., 1963.

Crehan, Stewart. *Blake in Context*. Gill & Macmillan, 1984.

Erdman, D.V. *Prophet Against Empire*. Princeton UP, 1977.

Fox, Susan. *Poetic form in Blake's "Milton"*. Princeton UP, 1976.

Frye, Northrop. *Fearful Symmetry*. Princeton UP, 1969. "Notes for a Commentary on *Milton*", in *The Divine Vision*, ed. by Vivian De Sola Pinto. NY: Haskell House Publishers, Ltd., 1968.

Gleckner, Robert F. "Most Holy forms of Thought: Some Observations on Blake and Language" in *ELH*, 41(Fall, 1974).

Howard, Jonn. *Blake's Milton: A Study in Selfhood*. Rutherford: Fairleigh Dickinson UP, 1976.

Keynes, Geoffrey. *Blake Studies*. Oxford UP, 1971.

Mitchell, W.J.T. "Blake's Radical Comedy: Dramatic Stucture as Meaning in *Milton*" in *Blake's Sublime Allegory*, eds. by Stuart Curran and J.A.

17) D.V. Erdman, 앞 책, p.384. W.J.T. Mitchell, *Blake's Composite Art*, p.181.

- Wittreich, Jr. The Univ. of Wisconsin Press, 1973. *Blake's Composite Art*. Princeton UP, 1978.
- Rose, Edward J. "Blake's *Milton*: The Poet as Poem" in *Blake Studies*, Vol. 1 (1) Fall, 1968.
- Volger, Thomas A. *Preludes to Vision: The Epic Venture in Blake, Wordsworth, Keats and Hart Crane*. Univ. of California Press, 1971.